무더위, 축사 점검하세요

– 차광막 · 환기팬 함께 활용…시원한 물(10~15℃) 충분히 공급 –

농촌진흥청(정황근 청장)은 낮 기온이 30℃를 넘는 등 이른 더위로 축사 관리요령을 소개하고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다. 가축은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사료는 적게 먹는데 이에 따라 체중이 늘지 않고 번식 장애가 나타난다.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가축이 받는 더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환기팬과 송풍팬을 이용해 축사 내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다. 개방형 축사의 경우 출입문이나 윈치커튼을 열어준다.

가축이 머무는 축사는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송풍팬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제 환기로 온도를 조절하는 밀폐된 축사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기와 배기팬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추려면 풍속을 초속 2~3m 정도로 조절한다. 환기시설 뿐 아니라 물을 이용해 가축 몸 표면의 온도를 낮춰 주거나 축사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도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내부 습도가 오르고 가축분뇨 처리량이 늘 수 있으므로 축사바닥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하고 송풍팬과 환기팬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가축이 물을 마시는 음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찬물을 충분히 공급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료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유지한다.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 → 주요 발간도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온기 가축관리 핵심기술'에서 축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가축이 받는 열스트레스는 '한우리 누리집(hanwoori.nias.go.kr)'을 통해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양계

표 1. 닭 임계온도(체온조절의 한계 온도)

구 분	닭
적정온도(℃)	16~24
상한임계온도(℃)	30

→ 27℃ 이상의 온도에서는 가축이 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심하면 생산성이 감소됨